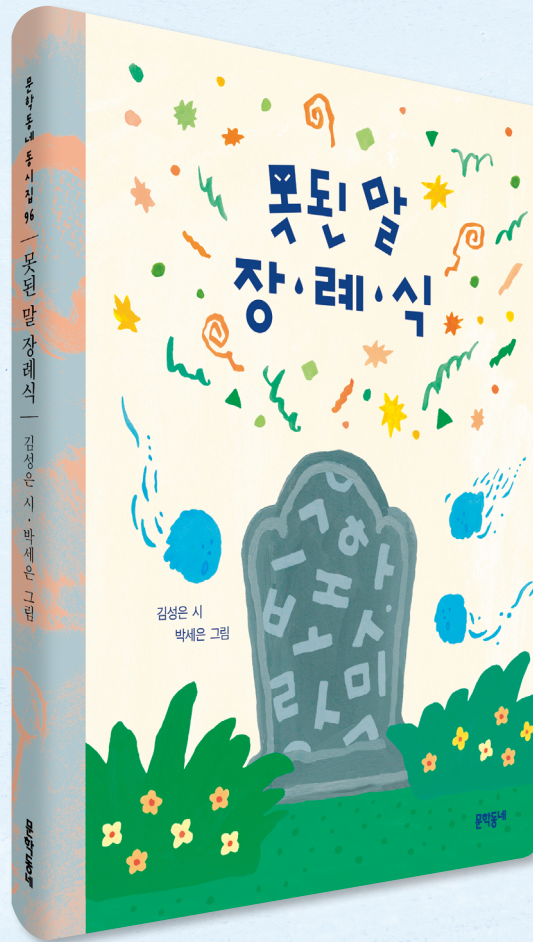


『못된 말 장례식』을 읽고 만드는
말의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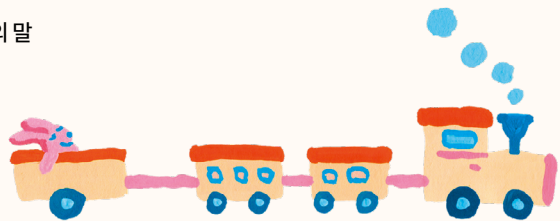
어떤 말들은 배배 먹을 필요가 있다
꼭꼭 껴서 질경질경
배고 씹고 되새겨 얻은 시



못된 말 장례식

김성은 시 | 박세은 그림

우리, 강물이 흐르듯 함께 흘러가요.
말들이 펼쳐 나가는 놀라움에 이끌려
넘실거리며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힘껏 날아오르면서요.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김성은 시인의 말



- 동시 초대장 -

안녕? '말의 집'에 온 걸 환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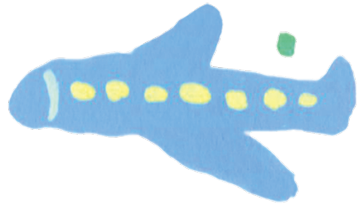
언젠가 네가 툭 던진 말, 친구한테 들은 말,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속말도
이곳에 모여 살지.

말들을 껌처럼 '꼭꼭 꼭꼭 질경질경' 씹어 볼래?
그러다 튼! 뺄어도 돼. 꿀꺽! 삼켜 버려도 돼.

오늘은 네가 이 집의 손님이자 주인이니까!



구성·집필: 남지은(시인)



꽂배기 그네

배를 대고 옆드리자
꼬이기 시작한다



땡글,
치! 기다리지 않고 갔단 말이지
땡글,
이제 다른 반이라 이거지
땡글,
아까 급식 같이 먹던 애랑 갔나?
땡글,
흥! 의리 없는 배신자 변덕쟁이



그때
탁 탁 탁 탁



—야, 이해인! 여기서 뭐 해?
떡볶이 먹으러 안 갈 거야?

땡그르르르르
단번에 풀어진다

—아니, 지금 가!





꼬였다 뱅그르르르 풀렸다

마음은 그네의 줄처럼 꼬였다 풀리기도 해요.

친구가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하고 부르면
섭섭했던 마음이 단번에 괜찮아지는 것처럼요.

내 마음은 언제 꼬였다가 풀렸을까요?

동시 「과배기 그네」를 읽고, 아래 빈칸을 채워 보세요.

시의 화자(이야기하는 사람)는 왜 마음이 꼬였나요?

나도 마음이 꼬였던 순간이 있나요?

그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 줬으면 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말은 무엇인가요?

별일 달일

별일 없었어?

학교에서 돌아오자 엄마가 묻는다

나는 별의 뽀족한 부분을

똑똑 떼어 내고

각진 곳을 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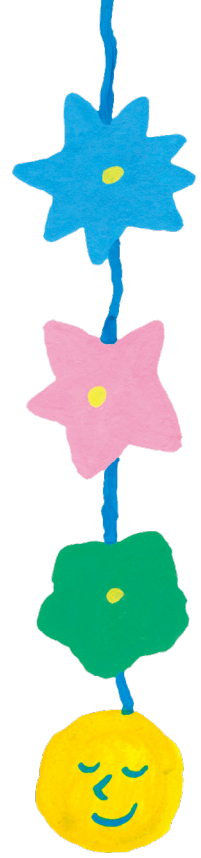
둥글둥글 달처럼 매만져

별일 대신

달일을 들려준다

엄마가 찢리지 않게

아프지 않게





별일 없었어? 달일 있었어

우리는 가끔 속마음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둥글게 깎아 다른 말로 바꾸기도 해요.
‘별일’과 ‘달일’을 털어놓고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요즘 내가 자주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내 속마음과 다르게 말했던 경험이 있나요? 왜 그랬나요?

누군가에게 꼭 털어놓고 싶은 속말이 있나요?

뽀족한 속말을 둥글게 매만져 말한 경험에 대해 시를 써 봐요.
「별일 달일」을 참고해도 좋아요.

바람이 보았다

벽을 걷는
사람

높은 빌딩
옥상에서 내려오며
창문의 묵은때를
벗기고 있다

흔들리는 18밀리미터
줄에
목숨을 맡기고
한 발 한 발
없는 길을 찾아
벽 위를 걷고
또 걸으며

식구들이 둘러앉은
동그란 상에
따뜻한 저녁밥이 차려진
저 아래 땅으로

내
려
간
다

바람은
걸음을 늦춰
빌딩 사이로
가만히 빠져나간다



활동3 바람이 보았다

바람은 높은 빌딩 벽을 오르내리는 사람을 보고
그 발걸음을 따라가요.
그리고 빌딩 사이로 가만히 빠져나가지요.
바람은 또 어떤 장면을 보게 될까요?

시에서 바람이 본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바람이 된다면 보고 싶은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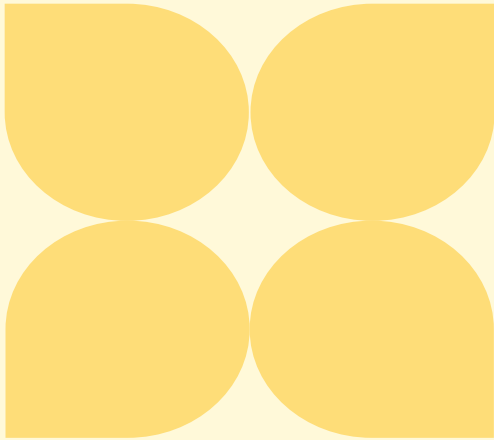
활동 4 말의 꽃다발

김성은 시인은 자신이 쓴 『못된 말 장례식』 동시집을 두고 ‘사랑의 말로 엮은 꽃다발’이라고 했어요.
『못된 말 장례식』 동시집을 읽으며 내 마음에 남은 말을 모아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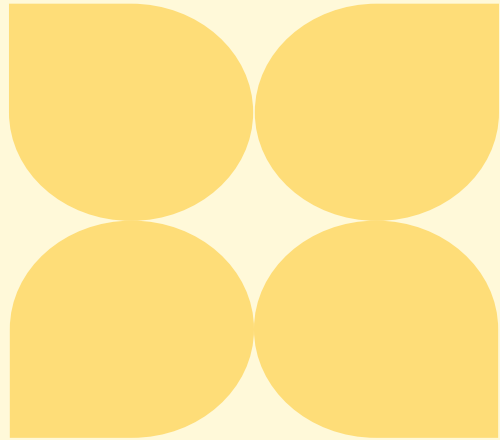
**내가 버리고 싶은 말, 지키고 싶은 말, 맛있는 말, 새롭게 피어나길 바라는 말을 골라
꽃잎 위에 적어 보세요. 꽃잎을 가득 채우면 커다란 ‘말의 꽃다발’ 완성!**

미안해 / 실수였어 / 이해해 줘 / 왜 이렇게 늦었어? / 제법인걸 / 떡볶이 먹으러 갈래?
햇별이 노릇노릇 / 빨강이 보글보글 / 나, 여기 있어 / 방문에 붙은 스티커
초저녁 들려오는 자장노래 / 봄이 곧 도착할 거야 / 괜찮아? / 목련꽃 함박웃음
봄이 열리네 / 산 위에 머물던 구름 / 소곤소곤 / 간질간질 / 휘이잉 / 쿵쿵쿵
갈 수 있는 한 멀리! /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 왜 대답 안 해? / 하얀 낮달
쌀알 같은 싸락눈 / 너에게 가까이 / 그래, 지금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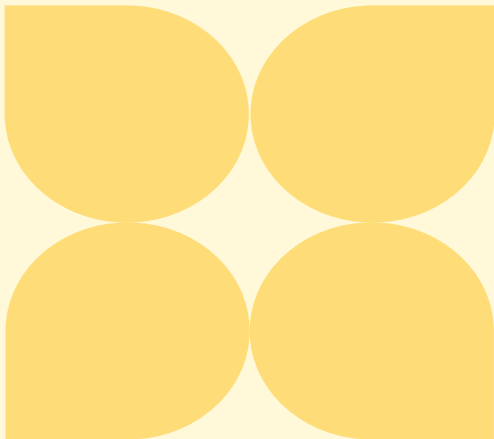
✿ 버리고 싶은 말



✿ 지키고 싶은 말



✿ 맛있는 말



✿ 새롭게 피어나길 바라는 말

